

강진 도깨비시장길 ‘복적복적’... 골목상권 ‘훈풍’

군, 상권 활성화 행사 개최...이들간 700여명 인파 몰려 관 주도 탈피·상인들 자발적 참여...“활력 넘치는 골목”

강진군이 도깨비시장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아심차게 기획한 ‘도깨비시장길 상권 활성화 행사’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도깨비시장길 상인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국길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지역 내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모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도깨비시장길 상인들이 지역 상권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 상인들은 강진 상권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주류 가격을 스스로 인하하고, 카페 메뉴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방문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러한 상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행사의 문턱을 낮추고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상인들의 따뜻한 인심과 정성에 힘입어 축제 기간 동안 도깨비시장길 일원에 마련된 ‘음악이 흐르는 아간 골목포차’에는 1일차 300명, 2일차 400명 등 700여명의 인파가 몰려 골목 전체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여기에 지역 내 상가에서 소비한 5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강진사랑상품권을 পে이백해 주는 이벤트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들간 총 412건의 참여를 통해 유도된 직접 매출액은 2900만원에 달했으며, 지급된 상품권은 다시 지역에서 재소비돼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택 도깨비시장길 상인회장은 “도깨비시장길의 이름으로 치른 첫 행사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해 너무 기쁘다”며 “바쁜 와중에도 주류와 카페 가격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상인 회원들과 아간 포차거리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함께 발로 댄 강진군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강진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도깨비시장길 상권 활성화 행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제공=강진군청

해남, 일본 국제식품박람회서 ‘K-푸드’ 매력 전파

도쿄 빅사이트 ‘해남관’ 운영...“수출 비즈니스 성과”

해남군이 지역 우수 농수산물품의 해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3일간 일정으로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아시아 주요 국제식품박람회 중 하나인 ‘2026년 일본 국제식품박람회 (JIFEX Summer Show)’에 참가해 독립 전시관인 ‘해남관

(K-Local Food from Haenam)’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박람회에서는 해남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의 전시 부스를 열고, 일본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과 건강식품 위주의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역에서는 두미원 (한식간장·누룽지)과 이마도 (김국 불독), ㈜세원씨엔푸드

(김가공식품) 등 3개사가 현지에서 직접 참가해 현장에서 생생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용식품 (참기름·들기름)과 땅콩어묵 (전복해물묵), 해남 달콤한자연 (고구마칩)은 경쟁력 있는 우수 상품을 출품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바이어 발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군은 참여 기업들에게 부스 임차료와 장차비, 바이어 발굴 및 매칭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 유통 지원과 수출업자 담당자가 행정지원관으로 직접 동행해 참여업체 뿐 아니라 출장이 어려운 미참가 업체의 상품까지 챙겨 해외 바이어 미팅을 대신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지역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참가한 농수산물 생산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일본 시장 진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군서면, 거동 불편 가구 주거 개선

현관 경사로·손잡이 설치...추석 나눔 계획도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영암군 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이영학·정명숙)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된 곳은 양장마을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세대다. 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집 현관에 진입 경사로를 만들고 안전 손잡이를 나란히 시공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동안 진행한 특화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3분기 활동 방향을 조율했다. 당장 올해 추석 명절에는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송편과 과일 등을 채운 명절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협의체는 주거환경 정비부터 명절 맞이 물품 나눔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다각도로 펼쳐 복지 그늘을 지우는 데 앞장서 왔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진도 철마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19일부터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 운영

진도 철마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국민의 인문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인문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인문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철마도서관은 가족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인 ‘자라날 너에게: 우리 가족 첫 인문학’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라날 너에게’는 부모가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이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전하는 가족 인문 사업이다.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닌 ‘우리 가족

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미취학 또는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와 양육자 10팀 (20명)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철마도서관 누리집 또는 ‘진도군 공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오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모가 자신의 삶과 가족의 가치를 돌아보며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 권의 그림책으로 남기는 특별한 인문 경험이 될 것이다”며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결과물을 공유하는 발간회를 운영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인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보길면 ‘시인의 정원’ 전경.



노화읍 ‘김스 가든’ 전경.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 두각

보길면 ‘시인의 정원’ 우수상·노화읍 ‘김스 가든’ 특별상

완도군에 소개한 개인 정원들이 ‘2026년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지역 정원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생활 속 녹지 공간 확대와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되며, 올해 17개 시·군의 총 40개소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정원·식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디자인과 심미성, 식재 소재의 다양성, 유지 관리 상태, 주변 경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원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보길면의 ‘시인의 정원’이 우수상, 노화읍의 ‘김스 가든’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인의 정원’ (정원주 김시옥)은 보길도 자생 난대림 교목과 과목류의 조화로운, ‘김스 가든’ (정원주 김윤화)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해당 정원은 ‘예쁜 정원’ 인증 현판을 받게 된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수상은 정원주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가꾸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정원을 발굴·지원해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